



신보-우리은행, 中企 디지털 플랫폼 혁신 지원

신용보증기금은 우리은행과 '중소기업의 디지털-데이터 플랫폼 혁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플랫폼을 연계해 중소기업의 디지털-데이터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왼쪽)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업무협약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캠코,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캠페인' 전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임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캠페인'을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개최한다. 캠코 대회의실에서 권남주 사장(가운데)과 직원들이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캠페인 홍보를 위한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캠코



김문석 SBI저축은행 대표, '노 엑시트' 캠페인 참여

SBI저축은행이 마약에 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캠페인을 진행했다. SBI저축은행은 마약 중독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김문석 대표이사가 동참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분들께 마약 중독에 대한 위험성에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마약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SBI저축은행



호서대-시몬스, '인재양성·산학협력' MOU

호서대학교는 시몬스와 '인재 양성 및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재 양성 및 산학 협력 방안 구축 등을 위한 방안과 유기적인 소통체계를 구축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종원 호서대 학사부총장(오른쪽)과 김성준 시몬스 부사장(왼쪽)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호서대



현대위아, 전국 사업장서 미술 전시회 개최

현대위아가 임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화합을 위해 미술 전시회를 개최했다. 현대위아는 지난달 29일부터 11일까지 경상남도 창원시 본사와 경기도 의왕시 의왕연구소 등 전국 각 사업장에서 '현대위아 아트페어'를 개최했다. 현대위아 임직원들이 전문 해설가의 설명을 들으며 미술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현대위아



임 경 수 교수의 라이프롱 디자인

윗목과 아랫목 중 어디가 따뜻한 곳일까? 온돌방에서 살아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아궁이에서 가까운 쪽의 방바닥인 아랫목이 아궁이로부터 먼 쪽에 있어 불길이 잘 닿지 않는 윗목보다 따뜻하기 마련이다. 기형도 시인은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이라고 썼다. 윗목은 그러니까 따뜻함으로부터 먼, 차가움에서 추론하여 불안감, 외로움, 배고픔 등을 연상시키고, 거기에 문풍지가 떨어져서 너털너털한 것 같은 가난하고 초라한 풍경을 펼쳐 놓는다.

기형도 시인은 29세에 요절했다. 1989년 3월 7일이었다. 삼개월 후쯤 유고시집 '입속의 검은 잎'이 발행되었고, 거기에 수많은 윗목의 상징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시인의 어머니는 팔순이 되어서야 아들의 작품을 읽을 수 있었다. 글을 읽고 쓰게 되었기 때문이다. 2015년 한 신문의 인터뷰에 따르면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열무 삼십단, 그건 내가 한 거니까. 아들이 그 걸 시로 썼구나, 그랬지. 그래도 머리에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시인의 어머니는 왜 머리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셨을까? 기형도 시인의 <엄마 걱정>을 다시 읽어보았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배추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의 은유·직유·대유적 표현에 이어 '내 유년의 윗목'으로 마감하는 문학적 구조가 이제 막 글을 깨친 어머니에겐 마땅치 않았으리라.

그렇겠다. '열무 삼십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오시네. /...방에 혼자 앉드려 훌쩍거리던'과 같은 구체적 표상들을 읽으면

마치 아들이 살아 있는 듯 선연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아들의 글을 다 이해할 것 같이 기쁘다가도 추상적이고 시적인 표현들이 불쑥 나서면 또 낙담하였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이제 글쓰기를 떼고 시짓기로 넘어가야겠다고 다짐했을 지도 모른다.

재작년에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개최한 문해교육 시화전에 가보았다. 시·군 지역에서 예선을 거쳐 올라 온 작품들이니 모두 만만찮았다. 그 중 오랫동안 머물며 읽은 시가 '엄마 문자로 하세요'였다. 학교 청소소 식당 설거지로 생업을 이끈 어머니가 이민 간 딸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시다.

딸은 야속하게도 문자를 남기라고 말하지만 어머니는 시에서 이렇게 표현한다. '듣고 싶은 목소리 참으며 한자 한자 익힌 글자로 딸아, 언젠가 멋있게 편지를 쓰마.'

또 최근엔 음성군 설성평생학습

관에서 문해교육 강의실을 엿볼 수 있었다. 박장대소에 강의실이 들썩 들썩하여 물어봤더니 중등 검정고시 합격생 어머니들이 4명이나 나왔다고 했다. 무엇보다 초등학력 인정 문해교육을 이제 마친 지 3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시험삼아 공부해서 모두 합격했다는 것이다.

필자는 대단하다고 연신 박수를 치면서도 어머니들이 살아 온 인생의 윗목이 얼마나 춥고 외로웠을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매년 9월이 되면 세계 문해(文解)의 날(International Literacy Day)을 맞아 전국이 들썩인다. 유네스코는 세계 문해의 날(9월 8일)을 기념하여 문해상을 제정하였는데, 그 이름이 세종대왕 문해상(UNESCO King Sejong Literacy Prize)이다. 이제는 윗목이 차가우니 아랫목으로 앉으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 주어야 한다. 문해교육이 그런 자리를 만든다.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교수·성인학습지원센터장

경제계, '다함께 행복한 추석 보내기' 본격 추진

상의 노량진서 수산물 구매 전경련 농어촌 여행 등 제안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다함께 행복한 추석 보내기'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서 우리 농수산물 홍보하고 구입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을 지원한다. 추석 명절을 앞둔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우리 농수산물 소비를 진작해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이날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100여 명은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곳곳을 돌며 시장 방문객들에게 친환경 장바구니를 나눠주고 우리 수산물을 홍보했다. 이후 임직원들은 사전에 지급받은 은누리상품권 20만 원을 활용해

인당 10~20만 원어치의 수산물을 구매했다.

대한상의는 전국 72개 상공회의소와 함께 추석 전까지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우리 농수산물 사랑 캠페인을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회원사에도 추석 선물로우리 농수산물 이용을 요청하는 등 캠페인을 홍보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11일 추석을 맞아 '우리 농수산물 소비 촉진 및 중소기업 상생협력'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류진 전경련 회장은 이날 회원사에 보낸 서한에서 "우리 사회가 어려움을 때릴수록 기업이 앞장서야 한다"며 "이번 캠페인이 농어민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회원사들에 ▲구내식당 단체급식에 국내 수산물 이용 ▲추석 명절 선물 시 국내 농수산물 구매 ▲추석 연휴에 농어촌으로 여행 ▲중소기업 협력사에 대한 납품단가 조기 지급 등 4가지 실천 과제를 제안했다.

전경련은 구내식당 급식을 담당하는 CJ프레시웨이와 함께 이날부터 일주일 동안 수산물 안심 소비 캠페인을 진행한다.

류 회장도 이날 오전 구내식당에서 전경련 임직원들과 함께 전복죽 등 국내 수산물로 식사한다. 이를 통해 우리 수산물의 안전함을 알리고 어민과 수산업계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LG, 파리 등 세계 주요도시에서 '부산엑스포' 홍보

타임스퀘어 등서 옥외광고

LG가 엑스포 개최지를 발표할 프랑스 파리에서도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알리기를 이어간다.

LG는 7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도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을 본격화했다고 11일 밝혔다.

LG는 지난해 6월부터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와 영국 런던 피카딜리광장, 폴란드 바르샤바 쇼팽 국제공항 등 랜드마크 대형 옥외광고관에 유치를 알려왔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억원에 부산의 매력을 어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파리는 엑스포 유치를 결정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개최지다. 오는 11월 28일 173회 BIE 총회



프랑스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설치된 2030 부산엑스포 유치 광고

에서 개최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LG는 샤를드골 국제공항에 6개 대형 옥외광고관에 응원문구를 선보였다. 부산(BUSAN) 알파벳 5개를 이용해 부산 랜드마크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부산 매력을 전한다.

지난 6월 제172회 BI 총회 당시에

도 공항과 BIE 개최 지역 곳곳에 100여개 광고판을 통해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홍보를 진행한 바 있다.

/김재웅 기자 juk@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정철동 LG이노텍 사장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

"진정성 있는 ESG경영 지속"

정철동 LG이노텍 사장이 일회용품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LG이노텍은 11일 정 사장이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 챌린지는 환경부가 시작한 캠페인으로, 1회용품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의미하는 포스트 사진을 촬영해 SNS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정 사장은 LX세미콘 손보의 대표에 지목됐으며,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박원철 SKC 사장과 문홍성(㈜두산) 대표이사를 지목했다.

정철동 사장은 "LG이노텍은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제공하는 '글로벌 No.1 소재·부품 기업'으로서 진정한 ESG 경영을 지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인사

-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국립축산과학원장 임기순
- ◆외교부 ◇공관장 △주OECD대사 최상대 ◇국장급 △기획조정실 조정기획관 송시진

부음

▲이을선씨 별세, 전영호·재호·문호(의성군 안평면장)씨 모친상= 11일 오전, DCMC대구가톨릭대학교 의료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3일 오전 8시. 053-650-4444